

한국, 일본 대학생의 교수학습 과정 비교 연구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교수학습 과정(process)을 조사하여 대학 교육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대학교와 홋카이도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10년 전부터 대학교육 혁신을 주제로 협력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홋카이도 대학의 고등교육추진기관(The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igher Education)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초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대학 교육은 최근 매우 보편화되고 있어서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양적 팽창과 견주어볼 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 평가가 강화되면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점차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기관을 중심으로 본교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학 교육의 성과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습 성과의 직접적인 측정이나 평가는 쉽지 않을뿐더러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부생의 학습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대학 모두 설문조사에 활용된 문항이 매우 유사하여 각 대학의 설문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 대학의 학습 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희 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교수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도구를 활용하였고, 홋카이도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각각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활용된 설문 문항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 고등교육연구소가 개발하여 시행 중인 학생 참여에 대한 전국조사(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영국 고등재정위원회(HEFCE)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재학생 설문조사(National Student Survey, NSS), 호주 대졸자경력위원회(Graduate Careers Council)가 주관하고 있는 학습경험 조사(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CEQ) 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각 조사 도구는 대학생의 학습경험 또는 학습과정, 학습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사의 관점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경험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 문항에는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수업 참여 수준, 수업 내·외적 활동, 능동적 학습, 협동학습,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업 역량의 수준 변화 등이 포함된다. 수업활동은 수업준비, 수업참여, 평가 및 시험과 과제 등의 수업 추수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독서 및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이 수업 외 자발적 학습활동에 속한다. 직접적인 학습활동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경험과 봉사 및 취업 관련 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홋카이도 대학의 경우 지필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는 2016년 5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고, 서울대학교 재학생 총 1,116명이 참여하였으며, 홋카이도 대학은 2015년 11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고, 총 2,600명이 참여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 활동 경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홋카이도 대학 학생들과 비교할 때, 수업 준비나 태도 영역에 포함되는 수업 시간의 성실한 참여, 지각이나 결석, 수업 과제의 제출 기한의 엄수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은 협력학습 경험 수준은 다소 낮았고(그림 1), 능동적 학습 경험의 수준은 다소 높았다(그림 2). 협동학습에는 수업과

제(조별 발표, 글쓰기, 프레젠테이션 등)를 위해 동일 수업 수강생 및 수업 수강생 이외의 학생들과의 도움을 주고 받는 활동,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설명한 경험 등이 포함되고, 능동적 학습 경험에는 자신의 과제에 대하여 타인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활동, 글쓰기와 관련하여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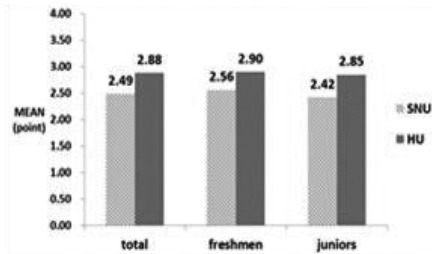


그림1. 협력학습 경험 수준
(서울대학교, SNU vs 홋카이도 대학, 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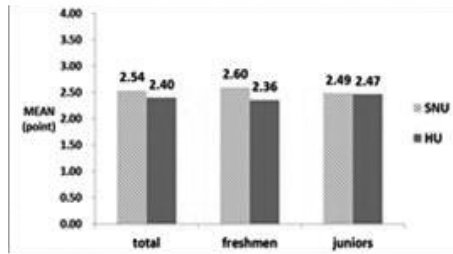


그림2. 능동학습 경험 수준
(서울대학교, SNU vs 홋카이도 대학, HU)

서울대 대학생들은 수업 관련 학습 경험(수업 내용 적용, 과제 수행, 필기, 수업태도 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홋카이도 대학 학생들과 비교할 때 협동적 학습 활동이나 능동적 학습(질문, 토론, 팀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험은 비슷하거나 높지 않았다.

수업과 관련된 주당 공부 시간은 서울대 학생들은 1-2시간이 가장 높았고(47.9%) 3-5시간(38.7%)를 나타내었고, 홋카이도대는 6-10시간이 가장 높았고(30.0%), 그 다음은 3-5시간이라는 응답은 28.2%였다. 수업과 관련된 공부시간은 서울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 학생참여조사(NSSE)의 경우,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도전 수준이 높을수록, 능동적 또는 협동적으로 학습할수록,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학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활동은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학습 자체를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과제나 수업 내용, 수강 신청 및 진로 등에 관하여 교수와 논의

하거나 면담한 경험 등이 포함된다. 두 대학 모두 신입생보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호작용의 수준도 올라갔으나 서울대는 훗카이도대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대는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 수준이 전체 한국대학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을 보였고, 훗카이도대라도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을 보였다(1.53, 4점 척도, 그림 3).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0% 수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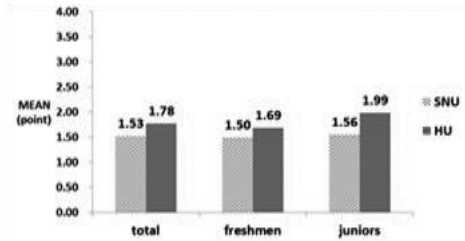


그림3.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 수준
(서울대학교, SNU vs 훗카이도 대학교, HU)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개별적으로 교수님께 자주 많은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고, 심화학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 글을 많이 쓰더라도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사실 결과가 나오지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니까 저는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서라도 어떤 게 좋았고 부족했는지 여쭙봤어요. 그것도 교수님에 따라 달라 안 알려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만나서 알려준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요.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극이 될 때도 많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쓴 내용인데 교수님께서서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수업 안에서만 글쓰기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교수님들이랑 원활하게 피드백을 받고 더 심화하는 수업들이 저는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리포트를 여러 번 썼는데 교수님께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인상 깊었던 구절에는 밑줄도 쳐주시고 간단하게 피드백을 전해주시니까 거기에서 저도 굉장히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공부하도록 태도가 전환된 것 같아요.

학생들의 면담에서도 드러나듯이 교수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진로 및 생활 상담뿐 아니라 수업 내용이나 과제 및 학업을 주제로 자주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밀착적인 학생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업 외적 활동 참여 수준

수업과 관련 없는 공부시간은 조사에 응답한 두 대학의 학생들 모두 약 20%가 공부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서울대 학생들의 30%는 1-2시간내외, 3-5시간(25.2%)의 분포를 보였고, 호카이도대 학생들은 0-2시간이라는 응답이 50%정도였으나 2시간 이상 20시간 이상을 할애한다는 응답도 10% 가량을 차지하여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파트타임 일에 참여 수준을 제외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동아리나 진로 탐색 경험, 봉사 활동 등 수업 외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은 호카이도대 학생들보다는 다소 높았다. 서울대 학생들의 수업 외적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임을 확인하였다.

학습 성과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수준은 학습 성과와의 연계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종합적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능력 등의 성장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에 대하여 서울대 학생들은 전공 지식, 고등사고력 역량, 글로벌 역량 등에서 다소 향상했다고 인식하였고, 호카이도 대학 학생들도 전공 지식, 글쓰기 및 발표 역량, IT 활용 역량 등에서 향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두 대학의 학부생의 학습 과정 경험 수준과 학습 성과를 분석하여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에서 강조하고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 대한 실태를 드러내는 기술 통계 결과와 함께 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면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강조해야 할 지원 정책과 전략을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최정운 외(2016). 대학의 교수 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IV).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14).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외(2015).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 외(2016).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W Lee, A Miyamoto, JY Choi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 based on the cas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okkaido Universit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24, 1-19.